

방글라데시 기도편지 52 (2022. 9. 25. 일)

6월 23일(목)에 출발 6주간의 한국 일정을 마치고 방국으로 8월 9일(화)에 돌아왔습니다.

밀린 일들과 급하게 처리할 일들을 하고 나니 벌써 한 달이 후딱 지났네요. 저는 자꾸 이번 달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ㅎㅎ 아이들이 많고 스텝들도 많아지니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일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야 급한 일들 마무리 하고 적응이 되었는데 한국은 가을가을한 소식이 전해오네요. 또 부럽습니다. ㅎㅎ

아가페 현 상황

1. 라자가 많이 아팠습니다.

- 1) 코로나로 인해 거의 2년을 CRP에서 지내는 동안 계속 구토를 하여 유동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 2) 아가페 홈에 와서도 2주에 한 번은 계속 구토를 하여 아무래도 검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3) 수면 내시경을 하는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국립은 없고 외국인들이 가는 사립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수면 내시경을 했습니다.
- 4) 공복으로 병원에 간 라자가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소리를 지르고,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 5) 마취 선생님과 남자 간호사가 잘 안정시키어 마취주사에 성공했고 검사를 잘 마쳤습니다.
- 6) 마취가 안 깬채로 나왔는데 베게에 피가 묻어있고 구토물이 묻어 있어 힘들었겠구나 싶었습니다.
- 7) 검사 결과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식도가 좁아졌고,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궤양으로 좁아져 있어서, 내시경 하면서 작은 것은 떼어냈는데 큰 것은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8) 수술비와 입원비를 알아보니 스텝들 월급의 거의 2년치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돌아와서 아무래도 수술은 국립병원에서 하는 것을 알아봐야 겠다고 결정했습니다.
- 9) 꿀미톨라라는 국립병원에 가서 내시경 사진을 보여 주고 수술여부를 물었습니다.
- 10) 손으로 배를 꺾꺾 눌러보더니 딱딱한 곳이 없고 아파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다시 구토를 하면 그 때 오라는... 복부 초음파 결과도 정상이고, X-ray 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 11) 누구 말이 맞는지... 일단 사립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어 호전이 되었을 수 있고, 궤양이 대변을 통해 배출 되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 12) 라자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 저를 먼저 아는 척하고 몇 일 병원 나들이를 해서 좋았던지 밖으로 나가자고... ㅎㅎㅎ 이렇게 라자는 다시 주님이 낮게 하셨습니다. 1년을 넘게 유동식만 먹었던 아이였는데... 아무튼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아직 마취가 안 풀린 라자
 옆-국립병원도착. 병원 휠체어를 빌리는데 보증금을 달라고, 그나마 발판도 없어요. 야전병원 느낌...



2. 성인 그룹 홈에 1명, 아가페 홈에 1명의 친구가 더 왔습니다.

CRP(뇌병변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연고자가 없고 학습이 불가능한 친구들을 저희에게 의뢰해 와서 고민하다가 우리 아가페 스쿨 아이들도 곧 성인(21세)이 될 터인데 학교 이후의 프로그램을 준비할 시점이 다가와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라자, 포에즈, 받샤를 아가페 학교 프로그램에 합류를 시키고 공부시간에 소근육 테라피 겸 학습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장차 성인 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하겠지요.

받샤라는 이름은 '왕보다 더 높은 제왕'이라는 뜻으로 자폐와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포에즈는 뇌병변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특히 대소변 의사를 표현합니다. 두 팔이 늘 귀 뒤로 올라가 내려오려면 부들부들 떨립니다. 사물 인지가 되는 친구입니다.

두 아이가 옴으로 라자가 질투를 느끼는지 간식을 더 달라는 등 표현이 늘었습니다.



위-포에즈/ 옆-받샤



3. 라킵의 아버지 샤하잘랄이 셔로즈를 대신하여 성인 그룹 홈의 친구들과(라자와 포에즈)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4. 9월 1일(목)에 어머니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장애 아동 어머니들은 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느라 힘이 들 뿐 아니라, 동네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 어머니들을 위로할 일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방국에도 어머니의 날이 있다는데 잘 모르고 있기에 그냥 아무날이나 하자고 해서 어머니들을 초청했습니다.

선물로 멜라닌 식접시를 3개씩 드렸고, 아이들과 교사가 만든 꽃을 감사의 뜻으로 아이들이 직접 엄마들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어머니들이 아이들 밥을 먹여주셨지만 이번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어머니들 입에 빵을 넣어드려 드시게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들이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루비나 선생이 어머니들께 아이들에 대해 걱정이 많았을 거라고, 그러나 이제는 하지 말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교사도 울고 엄마들도 울고...

이렇게라도 어머니들이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위-어머니를 위로하는 루비나 교사
옆-어머니들 앞에서 그동안 배운
찬양과 율동을 하는 우리 아이들...
아래-시작기도하는 아이들(주기도문)
너무 간절해 보이지 않나요?





엄마 고마워요...(둘은 남매입니다.-둘 다 근무력 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미다, 아라판, 메레라즈, 돌나, 아이샤, 아메나...

잘 퍼지지 않는 손가락으로 엄마 입에 빵을 넣어드리고는 아이들도 덩달아 입을 크게 벌려요.

5. 무란이 많이 아팠습니다.

무란의 아버지는 외국에 불법체류 노동자입니다. 일이 정기적이지 않으니 오히려 집에서 돈을 보내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엄마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중학생 누나가 센터에 무란을 데리고 왔었는데 이 누나가 가출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무란 엄마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가페 홈에 무란을 있게 해달라고 해서 고민 끝에 그렇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홈에 몇 일 있다가 열이 나서 엄마가 데리고 갔다가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6. 매월 생일파티가 열려요. - 9월은 교사 리따, 빌랄, 머호나, 알리, 라킵이 생일이네요~~



7. 아가페 모울리 선생님과 라자를 돌보던 그 남편 셔로즈가 사직했습니다.

남편 셔로즈에게 뇌전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 부터 있었다는데 결혼할 때 말을 미리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 샬로미 대신 임시 교사 보폴이 수고해 주고 있습니다.

9.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널서리 교사 론나는 건강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스쿨 교사 샬로미도 9월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갔는데 몇일 전 아들을 낳았다고 연락 왔습니다. 사직한 모울리는 아직 예정일이 남아있네요.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국 상황

방국도 가을로 넘어가는 듯 더위가 한 풀 꺾여 낮 기온이 31~34도 정도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27도로 살 만합니다.

내년 수상 선거로 외국 NGO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상황

아이들과 좁은 방에서 축구를 하다가 엄지 발가락을 다쳤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골절이라 해도 발가락은 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와 파스를 붙였는데 ㅎㅎ 명이 시퍼렇게 들고 걷기가 불편하며 찌릿찌릿 아픕니다. ㅎㅎ 하지만 곧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 1) 새로 온 포에즈와 반샤가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반샤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삼킴장애가 있는데 조금도 먹지 않아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했는데 혈액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CRP 병원에 다시 데려가 볼 예정입니다. 잘먹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널서리 라킵 누나 따만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춘기여서 엄마와의 갈등이 심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공부를 계속 시켜줄 생각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4) 라자를 돌보기로 한 라킵 아버지 샤하잘랄이 잘 정착하여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라킵 엄마 뺱키의 건강(지중해성 빈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킵으로 인해 온 가족이 아가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분명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5)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가정이 너무 파괴가 되어 있어서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6) 아가페에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 7) 몇가지 일을 겪으면서 주님의 아가페를 향한 사랑이 엄청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기쁨이 곧 기도 동역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길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신 28:2

신명기 28장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로 유명한 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축복을 받는 방법은 유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에 따르면...'입니다. 그 간단한 일이 평생이 걸리도록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감이 은혜입니다.



널서리 공부 시간... 연필로 쓸 수 없으니 플래쉬 카드로... 하미다,돌나,무란!!!



☞ 돌나 보조교사 - ㅎㅎ 사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등으로 밀어 화장실 앞까지 가는 무란.

아가페 스쿨의 색칠 시간... 열심히~~~ 밖으로 안나가게 꼼꼼히...





어쩌면 생에 처음 타본 상장일지도... ㅎㅎ
 그냥 색칠한 것을 보냈을 뿐인데 상장을 받았어요.

게임 시간... 라자도 한 몫... ㅎㅎ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샬롬~~~